

2015년도 4/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회의일시	2015. 12. 21.(월) 16:00 ~ 18:00
회의장소	7층 시장감시 회의실
회의안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호) 생활연수원 운영개선(안) [협의안건] : 추후 재논의 ○ (제2호) 임금체계 개편(성과연봉제등) TF 운영(안) [협의안건] : 원안 수정접수 ○ (제3호) 퇴직준비 휴가제도 개선(안) [협의안건] : 원안 접수 ○ (제4호) 유급휴일제도 개선(안) [협의안건] : 추후 재논의 ○ (제5호) 잔여휴가 사용촉진(안) [협의안건] : 원안 접수 ○ (제6호) 글로벌챌린지 교육시행(안) [협의안건] : 원안 접수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심의 전에 2015. 3/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결과를 회사측 간사가 간략하게 보고

	근로자 위원	서 명	사용자 위원	서 명
참 석 위 원 서 명	노조위원장 이진우		이사장 유상희	
	부위원장 이송재		기획본부장 김홍길	
	조직국장 박종필	불참	경영지원처장 조영태	
	기획국장 최재영		계통운영처장 송광현	
	노사대책국장 강지성		총무팀장 최상준	

붙임 : 회의내용 요약 1부.



(붙임)

2015년 4/4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내용 요약

제1호 (협의안건)	생활연수원 운영개선(안)
----------------------	----------------------

□ (사용자측 간사) 안전 보고

- 외부기관(감사원, 산업부)에서 생활연수원 운영에 대해 지적을 함에 따라 향후 생활연수원 이용시 근태처리는 교육으로 하지 않고 개인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숙박비, 식사비, 현장교육비 등 일체의 비용을 거래소가 부담하지 않고 생활연수원 입소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생활연수원 운영개선(안)에 대해 재차 의결을 요청함

□ 주요 내용 및 결과

- (회사측) 생활연수원 운영에 대한 지적사항은 개선시 까지 감사원에서 수시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감사실에서도 지적사항의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관리 중에 있어 조속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임.
- (근로자측) 거래소의 나주 이전이후 직원들의 생활여건이 악화된 상황에서 그나마 남아있는 직원 복지조차 축소시키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외국의 경우는 공무원들이 선진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일반기업으로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는 있는 복지제도도 축소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움. 직원들이 거래소에 다니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현행 보지제도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생활연수원 시설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가 동일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개선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회사가 개선해야 할 사항임.

- (회사측) 물론 회사에서도 그러한 점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감사원 입장은 거래소가 독립법인이므로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임. 본사의 나주 이전후 실질적으로 생활연수원 이용 실적이 낮고, 특정 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생활연수원 이용 개선을 통해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 (근로자측) 감사원에서도 현실을 무시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근로자측은 본건에 대해서는 절대 받아들일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추후 재논의

제2호
(협의안건)

임금체계 개편(성과연봉제등) TF 운영(안)

(근로자측 간사) 안전 보고

- 3/4분기 노사협의회시 노사 양측 모두 현 임금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였고, 정부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정책에 부응해 현재 이원화된 급여체계를 성과형 연봉제로 일원화를 위해 노사 공동 TF 구성을 요청함

주요 내용 및 결과

- (회사측) 기재부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 발표 뒤에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면 제대로 된 협의가 어렵고, 임금피크제 도입 선

례를 보더라도 정부방침에 따라 불가피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다면 선제적으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올해 말까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노사 동수로 구성된 노사 합동 임금체계 개편 TF 구성이 필요함.

- (근로자측) 성과연봉제 도입은 향후 노사관계의 최대 이슈사항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에서도 2016년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 발표후에 논의할 사항임. 현행 임금체계는 동일 직급내 편차가 크기 때문에 개선할 필요성이 있지만, 성과연봉제를 연동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먼저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정부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성과연봉제를 TF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것임.
- (회사측) 회사는 2016년 초에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외부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용역수행 초기부터 노사 공동으로 TF가 이에 참여함으로써 직원 대의기구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임.
- (의견접근) 2015년 말까지 노사 공동 임금체계 개편 TF를 구성하되, 2016년도에 정부의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면, 성과연봉제 도입 건을 임금체계 개편 TF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노사 협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함.

→ 원안 수정접수

제3호
(협의안건)

퇴직준비 휴가제도 개선(안)

□ (회사측 간사) 안전 보고

- 현행 퇴직준비휴가제도는 2014년 경평 지적사항으로, 현행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퇴직전 퇴직준비휴가 45일의 부여는 방만경영에 해당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퇴직준비휴가 대신 퇴직예정자의 전직훈련(outplacement 프로그램) 등을 통해 퇴직준비를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 주요내용 및 결과

- (회사측) 현행 퇴직준비휴가는 방만경영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2015년 4월에 지적을 받은 사항임. 퇴직준비휴가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의미가 많이 퇴색되었고, 현재 교육센터 주관으로 전직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 보완하는 방향으로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함
- (근로자측) 현행 퇴직준비휴가 45일로는 퇴직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함. 발전회사의 경우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전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거래소는 이러한 전직 여건이 부족하기 하기 때문에 오히려 퇴직준비휴가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함.
- (회사측) 현재 교육센터에서 주관하고 있는 퇴직준비휴가제도를 보완하여 퇴직전 일정 기간을 정해서 전문적인 퇴직준비 프로그램을 검토할 예정임. 따라서 퇴직준비휴가는 유급휴가에서 삭제하고 퇴직준비 교육훈련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퇴직예정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근로자측) 퇴직준비휴가제도 삭제에 따른 직접 영향을 받는 퇴직예정자들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회사에서도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퇴직준비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여 추후 재

논의 하는 것이 좋겠음.

- (회사측) 회사에서도 타사 사례조사를 통하여 개선방안을 곧 마련하겠음.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퇴직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므로 근로자측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원안 접수

제4호
(협의안건)

유급휴일제도 개선(안)

□ (회사측 간사) 안전 보고

- 현행 기념일 특별휴일제도(사창립일, 노조창립일)는 2014년 경평지적사항으로, 관련 휴가에 대해 방만경영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이 필요함

□ 주요내용 및 결과

- (근로자측) 창립기념일은 직원들이 축하하고 기념해야 할 날임에도 이를 삭제한다면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거래소 조직문화에도 악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되므로 절대 받아들일수 없음.
- (회사측) 기념일 2건에 대해 특별휴가 부여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으로 개선이 꼭 필요한 사항임.
- (근로자측) 한전 및 발전회사에도 사창립일 및 노조창립일을 특별휴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회사에서도 기념일로 정해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운영해야 마땅함.
- (회사측) 시대가 바뀌었고 국민의 눈높이가 있으므로 이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 (근로자측) 이는 우리가 앞장서서 개선할 사항은 아니므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고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음



→ 추후 재논의

제5호 (협의안건)	잔여휴가 사용촉진(안)
----------------------	---------------------

(근로자측 간사) 안전 보고

- 경영평가 대비 등 각박한 외부환경에 심신이 지친 직원의 휴식을 위해 연말까지 잔여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종무식 등 공식일정을 조정하여 잔여휴가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공무원이 시행하는 휴가 적치사용(저축)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요청함.

주요내용 및 결과

- (회사측) 전 처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연말에 잔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휴가 사용 독려 공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음.

→ 원안 접수

제6호 (협의안건)	글로벌챌린지 교육시행(안)
----------------------	-----------------------

(근로자측 간사) 안전 보고

- 신규입사자의 도전정신 함양, 성장기회 부여, 근로의욕 고취 등을 위해 글로벌챌린지 교육 검토를 요청함.

※ 글로벌챌린지는 신규입사자(입사 3년 이내)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①도전정신을 함양하고 ②건전한 경쟁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게 하며 ③향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갈 발판을 제공함

□ 주요내용 및 결과

- (근로자측) 향후 거래소를 이끌어나갈 젊은 직원들이 글로벌 마인드를 제고하고 잠재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글로벌챌린지 교육을 교육계획에 반영해 주기를 요청함.
- (회사측) 글로벌챌린지 교육의 취지는 좋은 것으로 판단됨. 2016년 교육계획 수립시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와 협의하도록 하겠음.

→ 원안 접수

기타

2016년 1/4분기 노사협의회 보고 요청

- (노조측) 전력거래소 본사 나주 이전 2년차를 맞아 직원들의 정주여건 개선정도를 확인하고자 2016년 1/4분기 노사협의회시 직원 정주여건 개선 및 이주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함. 끝.